

모바일 메신저상의 사이버불링에서 일상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및 이용중독을 통한 모델구성과 검증: 성과 학령별 네 집단 비교

이성식* · 전신현** · 정소희***

초 록

이 연구는 모바일 메신저 이용상의 사이버불링을 설명하기 위해 부모와의 긴장 및 학교긴장의 일상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모바일이용중독을 그 주요 원인으로 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그것을 남자중학생, 여자중학생, 남자고등학생, 여자고등학생 네 개의 집단에 적용해 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서울 및 경기도 남녀 중고등학생 1490명을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모긴장은 대체로 거의 네 집단 모두에서 모바일이용중독에 영향을 미쳤고 여자중학생에서는 그 영향이 사이버불링에 직접적인 것으로 나타나 여사이면서 상대적으로 어린 층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했다. 학교긴장의 모바일이용중독에의 영향은 남자중학생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모바일이용중독을 통해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남자고등학생에서 학교긴장이 사이버불링에 매우 높은 직접적 영향력을 가져 대체로 학교긴장이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더 큰 것을 제시했다.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네 집단 모두에서 모바일이용중독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고 여자 중고등학생에서는 사이버불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 중, 고등학생에 관계없이 특히 여자에게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이용중독과 같은 기회요인의 영향은 여자중학생에서보다는 남자중학생에서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남사이면서 어린 층이 모바일이용에 중독될수록 사이버불링을 더 저지른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처럼 본 연구결과에서는 네 집단별로 상이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모긴장은 여사이면서 중학생에게서, 학교긴장은 남사이면서 고등학생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의 작용은 여학생에서 더 크게 직접적으로 작용했고, 모바일이용중독은 남자에게서 그리고 중학생에게서 더 강한 영향력을 가졌다.

주제어: 사이버불링, 일상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모바일이용중독, 남녀 학령별 차이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 고려사이버대학교 청소년학상담학과 교수, 교신저자, junshin@cuk.edu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석사과정

I. 서 론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메신저상에서 폭력이 현실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다(이창호, 2014; 심홍진 외, 2016).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모바일 메신저 이용상의 사이버불링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 사이버불링과 같은 폭력행위는 우발적, 공격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청소년들의 일상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요인이 그 대표적인 주요 설명요인이 될 수 있다(Patchin & Hinjula, 2012; 이성식, 2006; 남상인, 권남희, 2013). 더구나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이용상에서는 긴장의 우발적 표출로 그리고 충동적 성향의 청소년이 사이버불링을 저지르기 쉽다. 그리고 스마트폰중독과 같이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다가 그와 같은 우연한 기회에 노출되어 불링을 저지룰 수도 있다(이성식, 2005; 남수정, 2011; 차은진, 2012). 이 연구는 일상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모바일이용중독을 그 주요 원인으로 하는 사이버불링을 위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그 적합성을 검증하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일상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모바일이용중독의 사이버불링에 대한 영향력이 남녀 청소년에 따라, 그리고 학령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주목한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위 요인들의 영향력은 일관적이지 못한데 그것은 여러 집단별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남녀는 사회구조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들의 작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Marcum et al., 2014). 더구나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학령층에서도 위의 요인들의 작용은 다를 수 있다(Thornberry et al., 1991; 이성식, 전신현, 2012).

이 연구는 부모와의 긴장과 학교에서의 긴장의 일상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모바일이용중독을 그 주요 원인으로 하는 사이버불링을 위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그것을 남자중학생, 여자중학생, 남자고등학생, 여자고등학생 네 개의 집단에 적용해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달리 나타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일상긴장, 자기통제력, 중독의 영향 및 그것이 성별, 학령별로 어떻게 달라질지의 기존 논의의 근거들을 살펴보고 네 집단별로 다를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를 논의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사이버불링의 원인에 대한 성, 학령별 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사이버불링 대책에 있어서도 그것을 차별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사이버불링의 주요 세 요인

일반긴장이론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긴장이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Agnew, 1992). 일상긴장은 화나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데 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른다고 보았다. 이처럼 긴장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의 일상생활에서 긴장을 겪을 때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불링의 경우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저지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상긴장은 현실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에서보다 사이버불링에 더 잘 적용될 수 있는데, 사이버공간에서는 사회적 실재감이 낮고 비대면에서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죄의식없이 긴장을 쉽게 표출하고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의 국내외 연구에서는 일상긴장이 사이버비행 또는 불링에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제시했다(Patchin & Hinduja, 2011; 홍영수, 김동기, 2011; 이성식, 전신현, 2012).

한편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일반이론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이 비행을 더 저지른다고 보았다. 폭력을 비롯해 대부분의 비행은 즉각적이면서도 충동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는데 자기통제력이 낮은 성향의 청소년은 순간만족과 충동성을 통제하지 못해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어려서 부모의 양육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며 그와 같은 어릴 때 형성된 개인성향은 청소년기 성장에 있어서도 비행을 비롯한 모든 행동의 주요 설명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오프라인의 비행 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이버비행에서 더 중요한 설명요인이 될 수 있다. 사이버공간의 비대면의 상황에서는 우발적이고도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더 쉬운데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은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고 한 번의 클릭으로 더 쉽게 누군가를 괴롭히고 폭력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이 여러 사이버비행 및 불링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이성식, 2006; 정혜원, 2010; 남상인, 권남희, 2013; 노성호, 김소라, 2015).

이 연구는 모바일 메신저상의 사이버불링을 다룸에 있어 일상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이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본다. 모바일 메신저에서의 사이버불링은 현실의 학교 폭력의 연장선에 있고 기존 비행이나 폭력연구에서 일상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은 주요 요인으로 다뤄져 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모바일 메신저에서는 불링이 쉽고, 간편하고, 지속적으로 하기 용이한 구조이어서 일상긴장을 더 쉽게 표출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쉬워 그 영향력이 클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상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 이외에 모바일이용중독을 또 다른 사이버불링의 원인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모바일이용중독은 기존 오프라인 비행연구에서는 거의 언급된 바 없지만 사이버비행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모바일이용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은 모바일상의 사이버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주장은 기회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기회이론은 본래 비행피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어서 우연한 기회와 위협에 노출될수록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되었지만(Hindelang, Gottfredson & Garofalo, 1978) 그와 같은 우발적인 기회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비행 가능성이 높다고도 주장된다. 오프라인의 경우를 보면 집밖에서 친구들과 밤늦게 시간을 보내는 등 위협에 노출될수록 비행을 저지른다고 하는데(Osgood, Wilson, O'malley, Bachman & Johnston, 1996), 인터넷에서도 사용시간이 많거나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온라인상에서 비행이나 불링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되고 있다(이성식, 2005; 이창호, 이경상, 2013).

인터넷중독이 일정 공간에서 인터넷에 탐닉하는 것과는 달리 모바일이용중독은 휴대이동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 과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긴 하다. 하지만 모바일이용중독도 인터넷중독과 같이 많은 내성, 금단증상, 무엇보다 중독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지장 등 과도한 이용에 따른 병리적 증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큰 차이가 없는 점에서 이 또한 사이버불링과 같은 온라인 비행에 영향을 줄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물론 모바일이용중독은 휴대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비행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있긴 하지만(이성식, 강은영, 최수형, 2015) 그럼에도 기존 연구는 연구대상별 차이가 있어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사이버불링의 세 요인의 영향에서 성 및 학령별 차이

이 연구는 앞서 제시했듯이 사이버불링의 원인으로 일상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모바일이용중독의 영향을 다룸에 있어 그 영향이 남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를지, 그리고 중, 고등학생 학령별로는 어떻게 다를지를 다루려고 한다. 이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와의 긴장이나 학교긴장은 청소년비행에 있어 대표적 긴장요인이 되지만 가정과 학교요인의 영향은 남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 주장되어 왔다. 전통적 성역할에 따르면 남자는 성취지향적이고 독립적이지만 여자는 주위 사람들과 관계지향적이다. 따라서 여자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남자청소년에게는 학업이 더 중요하며, 그러한 이유로 실제로 부모와의 긴장이나 학교긴장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김준호, 김순형, 1995).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를 보면 다소 일관되지 않고 더구나 부모와의 갈등이나 긴장이 남자청소년의 비행을 더 잘 설명한다는 결과도 있는데, 대체로 긴장요인들은 여자에게서보다 남자에게 그 영향력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그것은 남자는 긴장의 원인을 외부에 귀인하고, 화를 경험하며 그것을 외부로 표출하는 경향이 높지만, 여자는 긴장으로 화보다는 죄책감, 우울, 슬픔과 같은 자기지향적인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Broidy & Agnew, 1997; Broidy, 2001; Kaufman, 2009). 또한 여자는 도덕성이 높기 때문에 긴장의 상황이라도 함부로 그것을 쉽게 표출하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Jang & Johnson, 2005). 실제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부모와의 갈등과 같은 요인의 경우도 여자보다는 남자청소년들의 비행을 더 잘 설명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Daigle, Cullen & Wright, 2007; Jang, 2007).

그런데 오프라인과 다르게 사이버공간에서는 익명성, 비대면성 등의 특성상 자신을 숨길 수 있고 또 비행이 용이하며 도덕적으로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여자도 긴

장을 외부로 쉽게 표출하여 해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된다. 따라서 오프라인의 경우와는 달리 일상긴장의 사이버비행이나 불링에의 영향은 남녀 모두에서 높다고 볼 수 있다(이성식, 전신현, 2011).

한편 일반이론에 따르면 낮은 자기통제력은 어느 층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비행의 유일한 원인이기 때문에 남녀에 있어서도 모두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는 일관적이지 않아 남녀 모두에서 중요하다는 연구도 있지만(Keane et al., 1993; Daigle et al., 2007), 그 영향이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더 강하다는 연구가 있고(Burton Jr, Cullen, Evans, Alarid & Dunaway, 1998; Longshore & Turner, 1998), 그 반대로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크게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Tibbetts & Herz, 1996). 그럼에도 사이버공간에서는 더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은 클 것이고 그 영향은 남녀 모두에게 작용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 대상의 국내 사이버비행 연구에서는(이성식, 2012, 2014) 낮은 자기통제력이 남녀 모두에서 중요하지만 남자의 경우보다는 여자의 경우에서 그 영향력이 다소 크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오히려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에 있어서는 남녀 차이보다 연령별 차이가 클 것으로 볼 수 있다. 발달이론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동집단의 경우 어려서의 개인성향의 작용이 더 크고 상대적으로 환경의 영향이 적지만 청소년 성장기에는 어려서 형성된 자기통제력과 같은 성향보다는 성장기의 환경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실제로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나 성인초기의 경우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성향의 영향은 줄어들고 사회환경이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주장된다(Bartusch, Lynam, Moffitt & Silva, 1997; Chapple, 2005). 그런 점에서 보면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개인성향은 저연령층의 청소년에서 더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부모와의 긴장이나 학교긴장도 다소 학령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Thornberry(1987)는 가정, 학교, 친구관계의 요인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그것이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부모와의 관계와 같은 요인은 초등학생 저연령집단에서 중요하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 영향력은 약해지고, 학교요인은 중학생 이후의 연령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실제로 이후 연구에서는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했는데(Thornberry et al., 1991; 이철, 2008; 전신현 외, 2010), 그 주장대로라면 저연령층에서는 부모관련 요인이, 그

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교나 친구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모바일이용중독과 같은 기회요인의 작용은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러한 기회요인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회요인의 남녀별 작용에 관한 연구에서 Augustyn과 McGloin(2013)은 친구들과 밤늦게 어울리는 것과 같은 비구조화되고 감시되지 않는 활동 등의 기회요인이 폭력 등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그 영향이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더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이유가 여자보다는 남자가 남성성의 발현, 부모의 통제나 내적 통제의 부족 등으로 여자는 우연한 기회에도 비행에 쉽게 빠지지 않지만 남자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비행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했다. 사이버비행연구에서도 Marcum과 동료들(2014)은 사이버불링에서 여러 요인들을 남녀별로 살펴본 연구에서 사회네트워크의 친구와의 만남과 같은 기회요인의 영향력은 여자에서도 유의미했지만 남자에게서 더 크다는 것을 제시했다. 기회요인의 영향은 남자에게서 더 클 것이지만 사이버공간에서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여자도 우연한 기회에서 다소 비행의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모바일이용중독과 같은 기회요인은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의 비행을 잘 설명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도덕성이나 내적 통제와 같이 기회의 영향을 저지할 수 있는 여건이 높았던 것처럼 성숙한 고연령층 청소년과 비교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저연령층의 경우는 모바일이용중독과 같은 기회에 노출될 때 우발적으로 비행을 더 저지를 수 있다. 그와 달리 고등학생 연령은 단순히 인터넷사용시간이 많다고 비행을 저지르지는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초등학생 대상의 연구(이성식, 2009)에서는 인터넷사용시간의 영향력이 유의미했지만 고등학생 대상의 이성식과 전신현(2012)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사용시간의 사이버비행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음을 제시했다.

III. 연구모델과 방법

1. 연구모델의 구성과 가설

이 연구는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상에서의 사이버불링

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모델의 구성에 있어서 부모와의 긴장 및 학교긴장과 같은 일상 긴장요인과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모바일이용중독을 주요 요인으로 다룸에 있어 일상 긴장요인과 낮은 자기통제력은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바일이용중독을 매개로 하여 사이버불링에 간접적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본다. 즉 그림 1에 제시되듯이 일상긴장의 청소년,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은 모바일이용중독에 빠지기 쉽고 그러한 중독에 빠지다 보면 사이버불링의 기회가 많아 사이버불링을 저지르게 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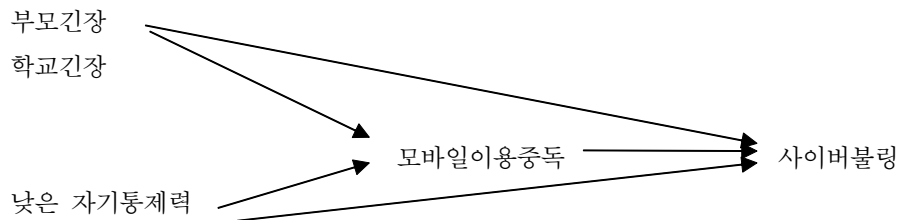


그림 1. 사이버불링에 대한 연구모델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에서 보면 이성식(2005)은 중학생대상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갈등, 학교긴장의 청소년이 인터넷중독으로 비행을 저지르고,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도 직접적이외에도 인터넷중독을 매개로 사이버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차은진(2012)의 중학생 대상의 연구결과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직접적으로도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미쳤지만 인터넷중독을 매개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해 인터넷중독이 사이버비행의 최종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남수정(2011)은 중, 고등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일상긴장요인이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터넷중독을 통해 사이버비행에 유의미하게 작용했음을 제시했고, 인터넷중독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일상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은 모바일이용중독에 영향을 주고 모바일이용중독으로 인해 스마트폰 이용상의 사이버비행을 하게 될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성식과 동료들(2015)의 연구에서는 학교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중독에 영향을 주지만 스마트폰중독과 사이버비행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일상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매개요인으로 모바일

이용중독을 사이버불링의 설명요인으로 제시함에 있어 이를 남녀 청소년, 그리고 중, 고등학생의 두 학령층별로 네 집단에 적용하려고 한다. 이에 대체로 일상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이 모바일이용중독을 매개로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줄 것이고 모바일이용중독이 최종적 원인이 될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제시하지만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했듯이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한 앞서 기존 연구에서 그와 같은 연구모델의 검증결과가 중, 고등학생에 따라 다소 다르듯이 네 집단별로 상이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선 부모와의 긴장이나 학교긴장, 그리고 개인성향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은 모바일 이용중독을 통해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지만 어려서 형성된 낮은 자기통제력의 성향은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의 중학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고등학생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중학생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이 사이버불링의 가능성이 높고 그 영향이 모바일이용중독 매개없이도 사이버불링에 직접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고등학생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이 직접적이기보다는 모바일이용중독에 의해 매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직접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 연구들에서 보여주듯이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남녀에 따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며 그 대신 두 학령층에서 그 작용이 상이할 것으로 예측한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게서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대조적으로 부모와의 긴장이나 학교긴장과 같은 환경요인은 상대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점에서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부모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에서 그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점에서 부모와의 긴장은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서, 그리고 학교긴장은 고등학생에서 모바일중독이나 사이버불링에 더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때 기존 오프라인의 경우와는 달리 온라인상에서는 남녀 모두 긴장을 표출할 수 있어 긴장요인들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할 것이지만 전통적 성역할의 차이에 따라 부모와의 긴장은 여자에게서, 학교긴장은 남자에게 그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 성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일상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으로 모바일 메신저 이용에 중독되는 경우 모바일이용중독의 사이버불링에 대한 영향력을 보면 그와 같은 기회요인은 남자에게서, 그리고

연령이 낮은 중학생에게서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도덕적이고 통제력이 높은 여자, 그리고 보다 성숙된 고등학생의 경우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아 모바일이용에 중독되었다고 사이버불링을 저지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부모와의 긴장과 학교긴장, 낮은 자기통제력은 직접적으로 혹은 모바일이용중독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부모와의 긴장과 학교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모바일이용중독의 사이버불링에의 영향은 성과 학령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부모와의 긴장의 영향은 남자보다는 여자,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서 더 클 것이다

가설 2-2: 학교긴장의 영향은 여자보다는 남자,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에서 더 클 것이다

가설 2-3: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서 더 클 것이다

가설 2-4: 모바일이용중독의 영향은 여자보다는 남자,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서 더 클 것이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2014년에 실시한 조사자료를 사용하기로 하는데, 이 자료는 서울 및 경기도의 남녀 중고등학생을 다단계층화계통추출법을 통해 조사한 것으로, 중학교는 서울 3개교, 경기도 4개교에서 1,2,3학년별로 1학급씩, 고등학교는 서울 3개교, 경기도 4개교에서 1,2학년을 2학급씩 조사를 하였다. 조사는 2014년 6월 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했고 최종 1490명을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우선 일상긴장요인으로 부모와의 긴장과 학교에서의 긴장을 사용하기로 하는데, Agnew(2001) 논의를 참조로 부모와의 긴장은 “나는 부모님과 갈등이 심하다” 등 세 문항($\alpha=.940$), 학교긴장은 “나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등 세 문항($\alpha=.773$)을 질문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기존의 연구에 의거하여(Grasmick, Tittle, Bursik & Arneklev, 1993), 충동성, 위험추구성, 단순작업추구성, 현재지향성, 이기성, 화기질 등 여섯 특성에 대해 두 문항씩의 질문을 하였는데, 예컨대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와 같은 총 열 두개의 질문에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900$).

모바일 메신저 이용중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스마트폰이용중독의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모바일 메신저 이용에 응용하여 “모바일 메신저 사용을 줄이려 했지만 실패한다” 등의 열 문항을 질문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917$).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다룰 사이버불링은 Willard(2006)의 논의에 기초하여 사이버불링에 해당하는 1)욕설, 2)비방/허위사실유포, 3)스토킹, 4)성희롱, 5)신상정보 유출, 6)따돌림, 7)위협/협박 등 일곱 항목에 대해 모바일 메신저상에서 일대일의 채팅과 그룹채팅에서의 위의 각각의 경우로 “없음(0)”과 “있음(1)”에 응답하도록 한 후 이것을 합산하였다.

여기서는 부모와의 긴장과 학교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모바일이용중독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사이버불링에 대한 연구모델의 분석에 앞서 기술통계분석은 SPSS PC를, 그리고 구조방정식모델은 AMOS를 통해 분석하기로 하며 남자중학생, 여자중학생, 남자고등학생, 여자고등학생 이렇게 네 집단별로 그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IV. 분석결과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표 1에서와 같이 남자 756명(50.7%), 여자 734명(49.3%)으로 남자가 다소 많았으나 거의 비슷했고, 중학생 대상자가 680명으로 전체의 45.6%를 차지했고, 고등학생은 810명으로 54.4%를 차지해 중학생보다 다소 많았다.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보면 일상긴장요인으로 부모와의 긴장은 3-15범위에서 평균값이 5.434로 낮은 편이었고, 학교긴장은 평균값이 5.260로 더 낮은 것을 제시했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12-60범위에서 평균값이 28.157였고, 모바일이용중독은 10-50범위에서 평균값이 22.151이었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다룰 모바일 메신저상의 사이버불링은 0-7범위에서 평균값이 1.202로 매우 낮았다.

표 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명	%	평균	표준편차	범위
성	남자	756	50.7			
	여자	734	49.3			
학년	중학생	680	45.6			
	고등학생	810	54.4			
부모긴장				5.434	2.902	3-15
학교긴장				5.260	2.653	3-15
낮은자기통제력				28.157	9.371	12-60
모바일이용중독				22.151	9.168	10-50
사이버불링				1.202	1.807	0-7

본 연구에서의 주요 요인들을 남자중학생, 여자중학생, 남자고등학생, 여자고등학생 네 집단별로 살펴보면 표 2에서와 같이 일상긴장으로 부모와의 긴장이나 학교긴장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에서 그 평균값이 더 높았고 중학생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부모긴장과 학교긴장 모두에서, 고등학생의 경우는 부모긴장은 남자가, 학교긴장은 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낮은 자기통제력의 점수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높았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높았다. 모바일이용중독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평균값이 높았는데 여자고등학생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불링의 점수를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에서보다는 고등학생에서 그 점수가 더 높았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을 네 집단별로 AMOS를 통해 검증함에 있어 그 모델의 적

합성을 보면 표 3에서와 같다. 네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기본모형부합지수 카이제곱의 수치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지만, 그래도 CFI나 TLI 등의 수치가 .90을 넘었고, RMSEA도 .08보다는 작아 수용수준의 모형부합지수를 제시하는 등 전체적으로 측정모형이 알맞게 구성되어 어느 정도 충족된 모형을 나타냈다.

표 2

네 집단별 주요 요인들의 평균점수

독립변인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n=350)	여자 (n=330)	남자 (n=406)	여자 (n=404)
부모긴장	5.193	5.385	5.656	5.465
학교긴장	4.536	4.946	5.631	5.779
낮은자기통제력	26.962	27.089	28.927	29.306
모바일이용중독	18.239	23.043	22.303	24.634
사이버불링	1.341	.801	1.759	.859

표 3

연구모델의 기본부합지수

모델적합지수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n=350)	여자 (n=330)	남자 (n=406)	여자 (n=404)
카이제곱	1097.634***	972.626***	1312.304***	1358.879***
df	539	539	539	539
GFI	.848	.856	.832	.832
RMSEA	.054	.049	.060	.061
TLI	.914	.924	.913	.903
CFI	.922	.931	.921	.912

* p -value<0.05, ** p -value<0.01, *** p -value<0.001

한편 앞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델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그림 2-1에서부터 그림 2-4까지 제시된다. 먼저 그림 2-1의 남자중학생의 경우는 부모긴장($p < .05$ 수준), 학교긴장($p < .01$ 수준),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p < .001$ 수준)이 모바일이용중독에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긴장, 학교긴장,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이 사이버불링에 직접적이지 않고 모바일이용중독을 통해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이용중독의 사이버불링에 대한 영향력은 $p < .001$ 수준에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의 여자중학생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모바일중독($p < .001$ 수준)에 영향을 미쳤으며 모바일이용중독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이버불링에,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이 $p < .05$ 수준에서 직접적으로도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긴장의 직, 간접적 영향력은 미약했고 부모의 긴장은 모바일이용중독에 $p < .10$ 수준에서만 유의미했고 모바일이용중독에 거의 매개됨이 없이 직접적으로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쳤다. 모바일이용중독은 사이버불링에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다.

그림 2-3의 남자고등학생의 경우는 부모긴장($p < .01$ 수준)과 낮은 자기통제력($p < .001$ 수준)이 모바일이용중독에 영향을 주었지만 모바일이용중독은 $p < .10$ 수준에서만 사이버불링에 약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학교긴장은 모바일이용중독의 매개없이 직접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시했다.

그림 2-4의 여자고등학생의 경우도 남자고등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긴장($p < .01$ 수준)과 낮은 자기통제력($p < .001$ 수준)은 모바일이용중독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모바일이용중독의 사이버불링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자고등학생의 경우는 앞서 여자중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낮은 자기통제력이 사이버불링에 직접적 영향력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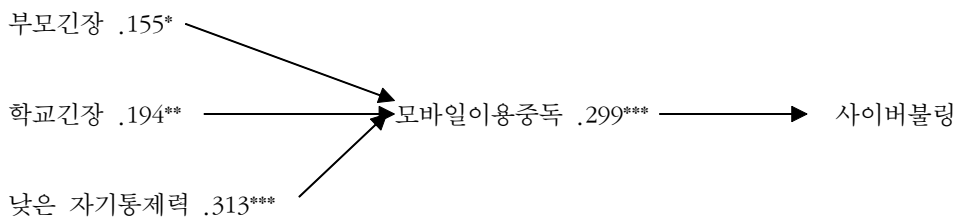


그림 2-1. 사이버불링에 대한 연구모델 분석결과(남자중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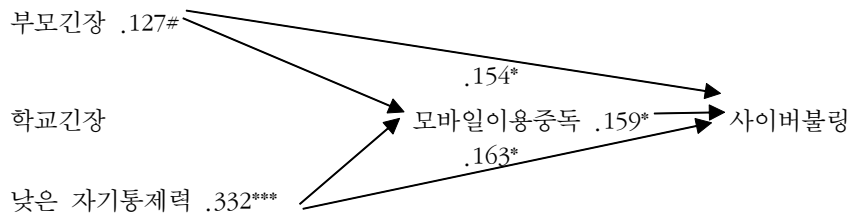


그림 2-2. 사이버불링에 대한 연구모델 분석결과(여자중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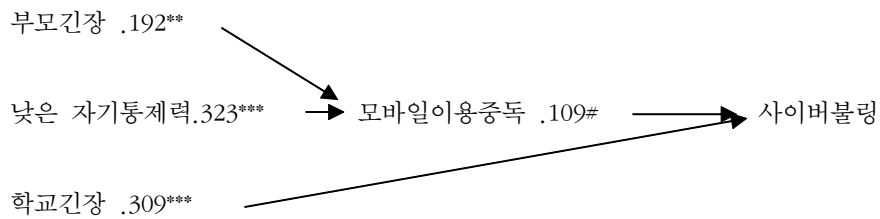


그림 2-3. 사이버불링에 대한 연구모델 분석결과(남자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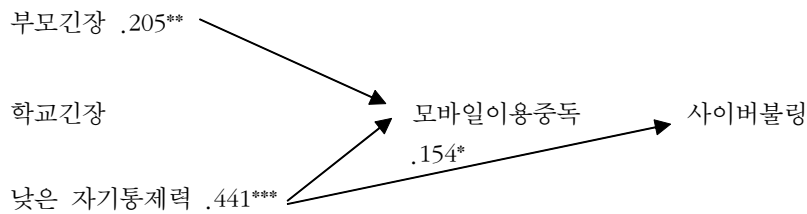


그림 2-4. 사이버불링에 대한 연구모델 분석결과(여자고등학생)

이와 같은 결과는 대체로 본 연구의 예측과 일치했다. 우선 부모긴장은 대체로 거의 네 집단 모두에서 모바일이용중독에 영향을 미쳤다. 부모긴장은 남자보다는 여자,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게 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측했는데, 다른 집단에서와 달리 여자중학생에서 그 영향이 사이버불링에 직접적인 것으로 나타나 여자이면서 상대적으로 어린 층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했다.

학교긴장의 모바일이용중독에의 영향은 남자중학생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모바일이용중독을 통해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남자고등학생의 경우는 학교긴장이 사이버불링에 매우 높은 직접적 영향력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긴장이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더 클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한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도 고등학교에서 직접적 영향력을 가져 부모긴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높은 층에서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하게 나타났다.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네 집단 모두에서 모바일이용중독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고 본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그리고 보다 어린 중학생에게서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여자 중고등학생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사이버불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 중, 고등학생에 관계없이 특히 여자에게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이용중독과 같은 기회요인의 영향은 고등학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중학생에서 유의미해 상대적으로 어린 층에서 유의할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여자중학생에서보다는 남자중학생에서 그 영향이 커 남자이면서 어린 층이 모바일이용에 중독될수록 사이버불링을 더 저지른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는 네 집단별로 상이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낮은 자기통제력의 작용은 여학생에서 더 크게 직접적으로 작용했고, 일상긴장은 부모긴장과 학교긴장의 영향이 달라 부모긴장은 여자이면서 중학생에게서, 학교긴장은 남자이면서 고등학생에서 더 크게 작용했다. 모바일이용중독은 남자에게서 그리고 중학생에게서 더 강한 영향력을 가졌고 여자이면서 고등학생의 경우 그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V. 결 론

이 연구는 모바일 메신저 이용상의 사이버불링을 설명하기 위해 부모와의 긴장과 학교긴장의 일상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모바일이용중독을 그 주요 원인으로 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그것을 남자중학생, 여자중학생, 남자고등학생, 여자고등학

생 네 개의 집단에 적용해 보고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날지를 논의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토하려고 했다.

본 연구결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대체로 본 연구모델대로 부모긴장, 학교긴장,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이 모바일이용중독을 통해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모바일이용중독의 사이버불링에 대한 영향이나 부모긴장, 학교긴장,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의 직, 간접적 영향이 네 집단별로 그 결과가 다소 상이했지만 대체로 연구모델의 바탕하에 논의될 수 있었고 그와 같은 네 집단별 상이한 결과는 본 연구의 예측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했다.

첫째, 일상긴장요인들의 영향력에서 우선 부모와의 긴장의 경우를 보면, 부모긴장은 본 연구모델에서와 같이 모바일이용중독에의 영향을 통해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제시했다. 즉 부모와의 긴장에 있는 청소년은 모바일이용중독 가능성이 높으며 그것을 이유로 사이버불링을 저지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여자중학생의 경우는 부모와의 긴장의 모바일이용중독에의 영향이 다소 약해 $p < .10$ 수준에서만 유의미했는데 그 영향이 매개되기보다는 사이버불링에 직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모긴장이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클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했고,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게 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했으며, 여자이면서 상대적으로 어린 층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했다.

둘째, 부모와의 긴장이 모바일이용중독에 대체로 영향을 미친 것과는 달리 학교긴장의 모바일이용중독에의 영향은 남자중학생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모바일이용중독을 통해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쳤다. 즉 학교긴장이 모바일이용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남자중학생의 경우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긴장을 경험할 때 모바일이용중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남자고등학생의 경우는 학교긴장이 사이버불링에 매우 높은 직접적 영향력을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긴장이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더 클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한다. 그리고 부모와의 긴장과 달리 연령층이 높은 층에서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하게 나타났다. 앞서 부모와의 긴장이 여자이면서 중학생에게서 그 영향력이 직접적이 크다는 결과와 대조되게 학교긴장은 남자이면서 고등학생에게 그 영향이 직접적이고 큰 것을 제시했다.

셋째,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네 집단 모두에서 모바일이용중독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져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들이 모바일이용중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

시켰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사이버불링에 대한 직, 간접적 영향력이 남녀 모두에서 그리고 보다 어린 중학생에게서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남녀 중학생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이 모바일이용중독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 보다 어린 층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했고 본 연구모델과 어느 정도 일치했다. 하지만 여자 중고등학생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사이버불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기도 하여 중, 고등학생에 관계없이 특히 여자에게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모바일이용중독의 사이버불링에의 영향은 고등학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중학생에서 유의미해 상대적으로 어린 층에서 유의할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여자 중학생에서보다는 남자중학생에서 그 영향이 큰 것을 제시해 남자이면서 어린 층이 모바일이용에 중독될수록 사이버불링을 더 저지른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모바일이용중독과 사이버불링과는 관계가 없는 것을 제시했다. 이 결과는 중학생의 상대적으로 어린 경우는 남녀 차이없이 모바일이용중독으로 사이버불링 가능성이 높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특히 여자고등학생의 경우는 모바일이용에 중독되어도 사이버불링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예측과 대체로 일치했다. 일상긴장요인은 성역할논의에 따라 부모긴장은 여자에게서, 학교긴장은 남자에게서 사이버불링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고, 또한 발달이론가들의 논의에 따라 부모요인은 중학생인 저연령층에서, 학교요인은 보다 나이가 많은 고등학생에서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와 같은 이유로 부모와의 긴장은 여자중학생, 학교긴장은 남자고등학생에서 사이버불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등 주요 요인이었다.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개인성향의 사이버불링에 대한 영향력도 발달이론가들에 따라 대체로 고등학생보다는 저연령층에서 직, 간접적으로 작용해 중요했다. 그런데 여자 중고등학생에게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이 직접적이기도 하여 예측과 다른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여자학생에게서는 모바일이용중독의 영향력이 낮기 때문일수도 있지만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여자에게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모바일이용중독과 같은 요인은 사이버불링을 설명함에 있어 보다 저연령층에, 그리고 특히 남자학생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인터넷중독과 같은 요인의 영향력이나 그동안 연구에서 주요 요인이었던 낮은 자기통제력이나 긴장요인 등의 요인은 연구마다 그 영향력이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아마도 연구대상이 연구마다 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성, 학령별로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그와 관련하여 사이버불링과 같은 비행의 대책도 그와 관련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개인성향은 저연령층에서, 환경요인은 고등학생에서 더 중요하게 잘 관리해야 하며 그것도 남녀별로 달라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중독과 같은 요인의 위험성은 보다 저연령층, 특히 남자학생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의 국내외 연구는 청소년대상의 연구에서 성 그리고 학령별로 그 원인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소홀했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것처럼 성과 연령은 대표적인 구조적 변인으로 주요 맥락적 요인으로 작용해 여러 비행의 원인들의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남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따라 그 원인은 다소 다를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몇몇 요인에 주목했지만 사회학습요인 등 다양한 원인들의 성, 학령별 비교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을 그 예로 다루었지만 앞으로 다양한 비행영역에 적용되어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준호, 김순형 (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남상인, 권남희 (2013). 청소년 사이버불링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3), 23-43.
- 남수정 (2011). 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중독의 매개효과와 익명성의 조절효과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49(2), 63-74.
- 노성호, 김소라 (2015). 자기통제력과 범죄기회를 통한 사이버불링 분석. **한국범죄학**, 9(3), 3-35.
- 남수정 (2011). 긴장과 낮은 자기통제력이 사이버일탈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중독의 매개효과와 익명성의 조절효과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49(2), 63-74.
- 심홍진, 한은영, 박병선, 박남기 (2014).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동기와 통제요인에 관한 연구: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중심으로**. 진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성식 (2005). 인터넷중독과 청소년비행의 관계. **정보화정책**, 12(3), 33-47.
- 이성식 (2006). 중학생 오프라인과 온라인 폭력 원인모색을 위한 주요 요인들의 적용. **청소년학연구**, 13(6), 179-200.
- 이성식 (2009). 초등학생들의 사이버비행에 있어서 일상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인터넷 사용시간의 영향작용: 세 이론의 검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 95-115.
- 이성식 (2012). 인터넷 악성댓글에 있어 낮은 자기통제력과 인터넷사이트 환경요인의 조건적 작용과 그 남녀 차이. **형사정책**, 24(3), 163-185.
- 이성식 (2014). 사이버비행에 있어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회유대 및 차별접촉 환경요인과의 상호작용효과와 그 성별 차이. **청소년학연구**, 21(2), 279-298.
- 이성식, 전신현 (2011). 집단괴롭힘의 피해와 가해의 관계와 그 성별 차이. **피해자학연구**, 19(1), 207-227.
- 이성식, 전신현 (2012). 인터넷사용, 일상긴장, 비행의 관계: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23(3), 293-318.
- 이성식, 강은영, 최수형 (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9(2), 69-101.
- 이창호 (2014).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창호, 이경상 (2013). 소셜미디어 사용시간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4(3), 259-285.
- 정혜원 (2010). 청소년단계에서 사이버비행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일반긴장이론, 자기 통제이론, 비행기회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1(2), 263-288.
- 차은진 (2012). 중학생의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터넷중독, 인터넷윤리의식, 사이버비행의 연쇄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1-27.
- 홍영수, 김동기 (2011).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감과 사이버비행의 구조적 관계: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 127-148.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8.
- Agnew, R. (2001).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Specifying the types of strain most likely to lead to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4), 319-361.
- Augustyn, M. B., & McGloin, J. M. (2013). The risk of informal socializing with peers: Considering gender differences across predatory delinquency and substance use. *Justice Quarterly*, 30(1), 117-143.
- Bartusch, D. R. J., Lynam, D. R., Moffitt, T. E., & Silva, P. A. (1997). Is age important? Testing a general versus a developmental theory of antisocial behavior. *Criminology*, 35(1), 13-48.
- Broidy, L. M. (2001).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39(1), 9-36.
- Broidy, L., & Agnew, R. (1997). Gender and crime: A general strai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4(3), 275-306.
- Burton Jr, V. S., Cullen, F. T., Evans, T. D., Alarid, L. F., & Dunaway, R. G. (1998). Gender, self-control, and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2), 123-147.
- Chapple, C. L. (2005). Self-control, peer relations, and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22(1), 89-106.
- Daigle, L. E., Cullen, F. T., & Wright, J. P. (2007). Gender differences in the

- predictors of juvenile delinquency: Assessing the generality-specificity debate.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5(3), 254-286.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smick, H. G., Tittle, C. R., Bursik Jr, R. J., & Arneklev, B. J.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1), 5-29.
- Hindelang, M. J., Gottfredson, M. R., & Garofalo, J. (1978). *Victims of personal crime: An empirical foundation for a theory of personal victimization*. Cambridge, MA: Ballinger.
- Jang, S. J., & Johnson, B. R. (2005). Gender, religiosity, and reactions to strain among african americans. *Sociological Quarterly*, 46, 323-357.
- Joon Jang, S. (2007). Gender differences in strain, negative emotions, and coping behaviors: A general strain theory approach. *Justice Quarterly*, 24(3), 523-553.
- Kaufman, J. M. (2009). Gendered responses to serious strain: The argument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deviance. *Justice Quarterly*, 26(3), 410-444.
- Keane, C., Maxim, P. S., & Teevan, J. J. (1993). Drinking and driving, self-control, and gender: Testing a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1), 30-46.
- Longshore, D., & Turner, S. (1998). Self-control and criminal opportunity: Cross-sectional test of the general theory of crim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5(1), 81-98.
- Marcum, C. D., Higgins, G. E., Freiburger, T. L., & Ricketts, M. L. (2014). Exploration of the cyberbullying victim/offender overlap by sex.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9(3), 538-548.
- Osgood, D. W., Wilson, J. K., O'malley, P. M., Bachman, J. G., & Johnston, L. D. (1996). Routine activities and individual deviant behavi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4), 635-655.
- Patchin, J. W., & Hinduja, S. (2011).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bullying

among youth: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Youth & Society*, 43(2), 727-751.

Tibbetts, S. G., & Herz, D. C. (1996). Gender differences in factors of social control and rational choice. *Deviant Behavior*, 17(2), 183-208.

Willard, N. E. (2006). *Cyberbullying and cyberthreats: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online social aggression, threats, and distress*. Eugene, OR: Center for the Safe and Responsible Internet Use.

ABSTRACT

The effects of strain, low self-control, and mobile phone addiction on cyber-bullying in mobile messenger use: Testing a model across four groups

Lee, Seong-Sik* · Jun, Shinyun** · Jeong, Sohee***

This study sought to construct a model for cyber-bullying in mobile messenger use through the variables of parental and school strain, low self-control and mobile addiction and to test it across four groups: male middle school, female middle school, male high school,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Using data from 1,490 male and femal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he Seoul and Kyunggi area, this study revealed different results across the four groups. It was found that parental strain has a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cyber-bullying, but it has a larger effect in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In contrast, school strain has a larger effect on cyber-bullying in male students. The results show that school strain has an indirect effect in male middle school students and a direct effect in male high school students. It is also shown that low self-control has an influence on mobile phone addiction in all four groups, but it has a direct effect on cyber-bullying in both middle and high school female student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mobile phone addiction on cyber-bullying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both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but its effect is larger in male students than in female students.

Key Words: cyber-bullying, strains, low self-control, mobile addiction, gender and school age difference

투고일: 2018. 8. 21, 심사일: 2018. 11. 2, 심사완료일: 2018. 11. 12

*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 Professor,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 Graduate Student, Soongsil University